

재정비 마친 광주FC, 후반기 첫 경기서 승리 쏜다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울산과 맞대결 전력 보강 앞둔 마지막 시험대...울산 상대 홈 강제 주목

프로축구 광주FC가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 반동을 위한 첫 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1 2026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울산HDFC와 맞붙는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처음 치르는 공식전이자 후반기 순위 경쟁의 출발점이다. 특히 세 영입 선수 등록 전 기준 전력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여서 현재 선수단의 경쟁력을 확인할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는 전반기를 1승 4무 10패(승점 7)로 마쳤다. 12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릿수 승점에 머물며 최하위에 처졌다. FIFA의 선수 영입금지 징계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이 어려웠다. 제한된 전력 속에서도 선수들은 매 경기 투혼을 발휘했지만, 선수층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월드컵 휴식기는 광주에 재정비의 시간이었다. 선수단은 체력 회복과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며 후반기를 준비했고, 구단도 여름 이적시장에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광주는 태운 반 흐른스벤, 아이데일, 사이토스키, 주앙 페드로 등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고, 장석환과 배진우 등 국내 자원도 풀었다. 여기에 기존 영입 선수인 박원재, 오하준, 이윤성, 임승겸까지 더해 현재까지 총 10명의 신규 자원이 후반기 등

록을 앞두고 있다. 부족했던 포지션을 고르게 보강하며 후반기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울산전은 추가 선수 등록이 가능한 9일 이전에 열려 세 얼굴들은 출전할 수 없다.

때문에 기존 선수단에게는 더욱 중요한 경기다. 세 선수들과의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다.

전반기 팀을 묵묵히 지탱했던 문민서와 안혁주, 김용혁, 공배현 등 젊은 선수들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들은 어려운 팀 사정 속에서도 꾸준히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고, 후반기에도 주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상대 울산은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리그 2위까지 올라선 우승 후보다. 골키퍼 조현우를 비롯해 김영권, 이동경, 말걸, 아고, 보이니치 등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공수의 균형을 갖춘 강팀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광주도 최근 맞대결에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리그 맞대결 10경기에서 5승 1무 4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고, 코리아컵을 포함한 최근 홈 3경기에서도 2승 1무를 기록하며 울산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이어왔다.

이번 경기는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반기를 버티낸 선수들이 후반기 경쟁력을 증명하는 무대이자, 새롭게 달라질



후반기 돌입 전 월드컵 휴식기 기간 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FC 선수단의 모습. 사진제공=광주FC

광주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다.

광주가 휴식기 동안 가다듬은 조직력과 홈 강세를 앞세워 후반기 반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광주는 오랜만에 홈팬들과 만나는 이번 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7월 홈경기(16·17·20라운드) 동안 이어지는 여름 시즌 대표 이벤트로 운영돼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축구 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위더페스티벌 존'이다. E석과 응원석 일부를 대

으로 선수단 입장과 킥오프, 광주의 득점 순간, 하프타임 등 주요 장면마다 워터케 홈 강세를 앞세워 후반기 반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홈팬 선착순 35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증정해 무더위를 식힌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동측 광장에서는 포토이즘과 라커룸 포토존, 푸드존, 팬 참여형 축구 게임이 운영된다. 남측 광장에서는 광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폴리마켓과 홈 보부스, 문화공연 등이 펼쳐져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라운드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도 이어진다. 경기 전에는 '원클럽맨' 이민기의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 기념식이 열리고, 하프타임에는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환영식이 진행된다. 세 얼굴들이 팬들에게 첫인사를 전하며 후반기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워터파크 이용권과 호텔 스텝

박권, 리조트 이용권 등 다양한 좌석 경험과 온라인 이벤트도 준비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FC 관계자는 "후반기 첫 홈경기는 선수단과 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경기"라며 "7월 홈경기 동안 이어지는 위더페스티벌을 통해 경기력과 관람의 즐거움을 모두 만족시키는 광주FC만의 여름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준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금호고 황금세대' 김우진 콜업

U18 출신 미드필더 우선지명...대학축구 4관왕 주역 볼 컨트롤·탈압박 강점...중원 이글 미래 자원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유소년 시스템이 길러낸 기대주 중원 자원을 품었다. 광주는 2일 U18 금호고 출신이자 단국대학교 소속 미드필더 김우진(21)을 우선지명으로 콜업했다고 밝혔다. 유소년부터 대학 무대까지 성장 과정을 거친 김우진은 광주의 육성 시스템을 대표할 차세대 미드필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우진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금호고 재학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 금호고 2학년 당시 현재 광주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인 문민서, 안혁주 등과 함께 '금호고 황금세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제23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와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대학 무대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

다. 지난해 단국대학교가 춘계대학축구연맹전과 추계대학축구연맹전, U리그1, U리그 왕중왕전까지 모두 석권하며 대학축구 4관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전술 이해도를 인정받았다.

김우진의 가장 큰 장점은 세밀한 볼 컨트롤과 탈압박 능력이다.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지켜내며 빠르게 다음 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고, 정확한 방향 전환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는 김우진의 합류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구단은 김우진이 장기적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선수로 성장해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진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광주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며 "다시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 무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해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준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김태군, 햄스트링 부상...1군 엔트리 말소

우측 부분 손상...주전 포수 공백 2주 후 재검진

KIA 타이거즈 포수 김태군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김태군은 2일 2026 신한 SOL KBO 리그 SSG 랜더스와의 주중 3차전 경기에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말소다.

앞서 김태군은 지난 1일 SSG와의 경기

에서 10회말 1사 만루에서 대타로 출전했다. 그는 상대 초구를 받아쳤으나 유격수 땅볼이 났고, 1루를 향해 뛰다가 이상을 느꼈다. 경기 후 구단 지정 병원에서 MRI를 진행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우측 햄스트링 부분 손상(그레이드 1~2) 소견을 받았다.

2주간 치료를 진행한 뒤 재검진을 통해 복귀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전 포수 공백이 생긴 만큼,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병호 감독은 "타격 후 주루 과정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민감한 부상 부위라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KIA는 이날 1군 엔트리에서 최지민과 김태군을 말소하고 투수 지현과 포수 권다결을 등록했다.

송하준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중국 산둥성, 생활체육으로 우정 다졌다

전남도체육회가 중국 산둥성과 함께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양국 생활체육인의 우정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26회 한·중생활체육교류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와 도 회원체육단체(농구·바둑·배드민턴·탁구·테니스)가 주관했다. 생활체육을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스포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화전국체육총회 허우위 선수단장을 비롯한 중국 산둥성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6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농구, 바둑 등 5개 종목에서 친선경기를 펼치며 스포츠를 매개로 우정을 나눴다.

종목별 교류에서는 경기뿐 아니라 양국의 생활체육 운영 사례와 문화를 공유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 목포 삼학도 크루즈 문화탐방 등 전남의 대표 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경험했다.

전남도체육회는 행사 기간 숙박과 수



'제26회 한·중생활체육교류 초청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26회 한·중생활체육교류 초청행사 성료...5개 종목 친선경기 10월 전남선수단 산둥성 방문...지속 가능한 스포츠 교류 확대

송, 통역, 공식행사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종목별 교류 확대와 정례적인 상호 방문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교류는 오는 10월에도 이어진다. 전남 선수단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제26회 한·중생활체육교류'를 이어가며 양국 생활체

육 교류의 연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교류는 스포츠를 통해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국제 교류를 지속 확대해 양국 체육 발전과 민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준 기자 hajong2@gwangnam.co.kr

샌디에이고 송성문, MLB서 첫 대표

시카고 컵스전서 4타수 2안타

와의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홈런 1개 포함 4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 1개를 올렸다.

3회 첫 타석에서 유격수 쪽 2루타로 기세를 올린 송성문은 0-9로 끌려가던 5회 선두 타자로 나와 우측 펜스를 총알처럼 넘어가는 메이저리그 통산 첫 홈런으로 팀의 첫 득점을 냈다. 시속 173km의 속도로 117m를 날아갔다.

송성문은 6회와 8회에는 각각 좌익수 뜬공,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송성문이 멀티 히트를 친 건 지난달 7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 이래 근 한 달 만이다. 시즌 타율은 0.233, 타점은 9개다.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 위커 불러가 3개, 한국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출신 가일 하트가 3개, 포수로 뛰다가 패전 처리로 마운드에 오른 로돌포 두란이 2개의 홈런을 허용해 홈런 8개와 안타 17개를 얻어 맞고 3-23으로 크게 5연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송성문은 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